

# 광주시, 지역 현안 해법 시민단체와 머리 맞댄다

## 시민사회단체협의회 4차 토론회...민선8기 성과·시정 발전 논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군공항 추진 현황 등 방안 마련 모색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와 광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제4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토론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시정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1월30일 시민사회단체와의 첫 번째 소통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 12일 2차 토론회에서는 풍암호수, 복합쇼핑몰, 보육대체교사 등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3월 26일에는 '중앙공원1지구 관련 시민

공정회'를 열어 시민단체와 끝장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4차 토론회는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약속했던 민선 8기 2년 성과와 시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은숙 광주시 정책기획관이 '민선 8기 2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기우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광주시정 2년' 평가를 발표한 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4개 주제와 광주시가 제시한 2개 주제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성(저출생 정책, 여성 폭력 시설 지원 확대 제안, 성평등 정책 등)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환경과 교통(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등) ▲도시 문제(지산C, 대규모 공공 건축물 전환, 도시철도 2호선 등) 등 4개 주제에 대한 질문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군공항(추진 현황 및 시민사회와 협력 방안 등)과 대자보 도시(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등) 등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선 8기 2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 수렴 및 시민사회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굵직한 시정현안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 활성화를 비롯한 민간공원, 5·18통합조례 제정 등은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면서 "민관협력 이 한걸음 더 나아가 소통하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르신들 드실 삼계탕 정성스럽게” 광주 북구 운암3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초복을 앞둔 10일 오전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삼계탕과 열무김치 등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탈표 잡아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주목

### 오늘 본회의서 4개 위원장 선거 '1당 독재'에 곳곳 잡음 드러나

광주시의회 의장·부의장 투표에서 무효·기권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1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지난 8일 마감한 상임위원장 후보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의원이 등록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시당 내 결정을 통해 선출된 후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일단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국민의힘 1명·무소속 1명)인 점을 들어 민주당 결정으로 올라온 상임위원장 후보의 낙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앞서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 무효표와 기권표가 많이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선거 역시 상당수의 무효·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8일 치러진 의장,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선거에서 신수정, 서용규, 채은지 의원이 각각 당선됐는데, 의장에 당선된 신 의원은 전체 의원 23표 중 16표(무효 4표·기권 3표)를 받았고, 서 의원도 16표(무효 3표·기권 2표)를 받아 2표를 얻은 김용임(국민의힘·비례) 의원을 꺾었다.  
이어진 제2부의장 선거에선 채은지 의원이 15

표(무효 2표·기권 1표)로, 5표를 받은 김용임 의원을 이겼다.  
이처럼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무효·기권표가 속출하면서,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는 단순한 '선출' 여부를 떠나 내부 이탈표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당내 단합 부족이나 분열이 아닌 '민주당 독식' 체제인 현 시의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광주시의원은 “경쟁과 견제의 결여가 결국 ‘원 구성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경쟁 없는 시의회는 경쟁력마저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

전남개발공사는 10일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첫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한 공사는 지역협력사들과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ES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Standards) 2021년 버전에 따라 작성했으며, UN SDGs,

SASB의 지표를 반영하고 독립 인증기관의 제3차 검증을 받았다.  
공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남개발공사의 경영비전 '튼튼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 전남개발공사'를 기반으로 실현해온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ESG 전략 방향과 실천 성과 등을 담았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가 없는 지방공사에도 보고서를 발간해 지역에 ESG경영 생태계 조성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폭염·영농철 대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 전남도, 가입비의 80~100% 지원

전남도는 “8월 폭염과 9월 영농철 등에 대비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권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한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 2500만원(보조 122억 6000만원·자부담 30억 6500만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9만8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

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본격 추진

### 19일까지 수행기관 2곳 모집

광주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중증장애인 12명과 중증장애인을 보조인력 2명을 채용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경제적 보상보다는 참여를 통한 노동의 권리와 기회 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여자 인건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등을 감안해 주 15시간 기준으로 월 78만원, 사업수행을 도울 전담 보조인력은 주 40시간 266만원 수준이다.  
광주시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행기관을 오는 19일까지 공모하고, 수탁기관인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5일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재정형편상 본예산 확보가 어려워 우선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사업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본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기능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 다양한 프로그램 | 병院内 생활공유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인증기간]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동행요양병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31129-8-63255호